

지역 소식통

상평선 도시계획도로 개통
정읍시 교통통행 불편 해소

정읍시가 시민 교통통행 불편 해소에 두 팔을 걷었다.

관련해 오는 13일 종합경기장에서부터 상평지하차도~상평마을을 연결하는 상평선 도시계획도로(L=587m)를 개통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상평동과 소성면 주민들은 종합경기장이나 상교·신정동 방문 시에 연지지하차도를 거쳐 약 2.4km를 우회하는 통행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가 사업비 8억3,500만 원을 들여 이번 해 5월 KTX 상평지하차도의 양쪽 도로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한 것이다.

시는 상평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2017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18년 5월 착공했으나 일부 편입토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됐었다가, 올해 토지소유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보상 협의로 지난 3월 모든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무료 공영주차장 2곳 조성
고창군, 총 52면 규모개방

고창군이 최근 소규모 공영주차장 2개소를 준공해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고창읍 월곡 뉴타운 지역과 심원면 소재지 우체국 옆 부지이다. 총사업비 2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완공했다.

고창읍 월곡뉴타운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1,234㎡이고, 총 42면의 주차구역중 입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 5면과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함께 갖췄다. 심원면 소재지 공영주차장은 389㎡의 부지에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포함해 총 10면의 주차구역이 만들어졌다.

군은 하반기에도 무장면 무장리 288번지 일대에 총 3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공사를 시작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현안 해결 소통행정 총력”

정읍시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등 추진 사항·계획 상세히 설명

정읍시가 11일 2020년 6월 첫 번째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올해 첫 번째 정례브리핑을 실시한 후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브리핑을 잠정 중단했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21일 정례브리핑을 재개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국·단·실과소장이 브리핑을 담당하며 충분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과) ▲정량 자연자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안전총괄과)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건설과) ▲공공설비주택 건립사업(건축과)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교통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상하수도 사업소) 등을 설명했다. 특히 도로망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진행중인 공사 현장 차량 통행금지 등 집중 홍보가 필요한 국 소관 각 부서 현안 사업을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6월 두 번째(이날) 브리핑에는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이 나서 국 관할 5개 과와 개소의 주요 현안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국장은 브리핑에 앞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상황 등을 알리며 코로나19 예방 대책 지속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읍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는 언론인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 중심의 인천 인프리를 갖춘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국 소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추진해 가야한다"며 도시안전국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드·근 하다리 가설공사(도시재생

형 지역 SOC 확충 방안에 대해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매월 둘째와 네째 목요일에 시정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올해 2월 2020년 첫 번째 정례브리핑을 실시한 후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브리핑을 잠정 중단했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21일 정례브리핑을 재개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국·단·실과소장이 브리핑을 담당하며 충분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가 11일 2020년 6월 첫 번째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정읍시 ‘천사하이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시범운영

유치원생 초청 놀이기구 체험

월으로 조성된 관광시설이다.

실내형 복합놀이터를 테마로 가족 단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20종 50개

의 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다.

시는 이 시설을 기반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가족 단위 체험과 힐링 토탈관광 기반을 구축해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곳을 꿈나루 체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

부안군, 12월말까지 더 연장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시행하는 정책으로 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경상된 지난 3월부터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을 당초 지난 5월 말까지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7개월간 추가로 연장하고 향후 코로나19 진정 등황에 따라 사용료 감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의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에서 다방면으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사용료 감면 연장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지난 8일부터 받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과 여성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기 의원은 "매년 많은 농사와 노동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은 우리 농어촌이 미주하고 있는 숙제"라며 "앞으로도 부안의 여성농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농어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체계 지원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설비 지원 등 여성농어업인의 경쟁능력 향상에



정읍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QR(Quick Response)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흥시설 이용땐 QR코드 찍으세요”

정읍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정읍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QR(Quick Response)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관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8개 시설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풀리네,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 접두문 등 시설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출입기록 허위기재에 따른 벌금의 빈틈을 막고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성, 연락처 확보, 감염차단을 위해 도입됐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관련 시설의 출입자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벌금수령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고연령 시설관리자들이 많아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과 12월 3회에 걸쳐 전자출입명부 시설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여성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김정기 부안군의원 대표 발의… 관련 조례안 상임위 가결

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은 대표 발의한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에 근거해 부안군에서 영농활동 및 영어활동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위향상, 보육여건 개선 등 여성의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체계 지원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설비 지원 등 여성농어업인의 경쟁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과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기 의원은 "매년 많은 농사와 노동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권리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은 우리 농어촌이 미주하고 있는 숙제"라며 "앞으로도 부안의 여성농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농어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개최하는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